

찬양의 제사

핵심 구절: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립시다. 곧 우리 입술의
열매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15

선정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12-21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 제도와 제물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제물의 몫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몸은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 성소로 가져간

피로 인해 진영 밖에서 태워집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수치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 - 히브리서 13:10-13

바울은 우리 핵심 구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리라 격려합니다. 그는 이 제사를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하며, 이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니라”라고 덧붙입니다. - 15,16절

사도의 이 말씀은 성막의 금향단에서 솟에 뿌려진 향료가 달콤한 향기를 내어 지성소로 퍼져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30:1-8) 확실히, 찬양의 제사,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향과 같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러한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 빌립보서 4:18

우리 주제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며 사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분[예수]이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라." (로마서 6:10,11).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산된 사실임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희생과 한 봉사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로마서 12:1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높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복된 부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5). 우리는 아담의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졌다는 확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됩니다. -
이사야 61:10; 빌립보서 3:9; 고린도전서 12:12,27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그의 진리와 의의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창조물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씁시다. (마태복음 24:14)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희생”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입니다.